

반려동물 친화 도시 추진 탄력

‘반려동물 산업 메카’ 임실군 오수지구, 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 대상 수상

반려산업의 메카이자, 세계명견테마랜드가 추진 중인 임실군 오수지구가 2024년 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군은 지난 13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2024년 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에서 지역특화재생 지자체 부문 국토교통부 장관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는 (사)도시재생산업진흥협회와 연합뉴스가 공동 주최하고,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 추진위원회가 주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이 특별후원하는 전국 도시혁신(재생) 우수사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람회이다.

오수지구는 앞선 지난달 31일 ‘2024년 균형발전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역특화부문 우수사례로 선정된 데 이어 또다시 대한민국 도시재생을 잘한 지자체로 이름을 알렸다.

이 같은 연속 수상으로 오수지구 도시재생사업은 반려동물 산업과 지역유산을 결합한 특화 전략이 도시재생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오수지구 도시재생사업은 2022년 국토교통부 지역특화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 217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사업이다.

군은 ‘의견(義犬)의 고장 오수, 같이 함께 잘 살아보시게’라는 슬로건 아래 반려동물 친화 도시 조성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반려동물 교육 공간인



임실군은 지난 13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2024년 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에서 지역특화재생 지자체 부문 국토교통부 장관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반려스쿨과 반려동물 소품 제작 공방인 반려하우스, 반려동물 특화 거리 조성 등이다. 이와 함께 노후 주거지와 골목길 정비 등 주민 생활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번 수상은 오수의 ‘의견 설화’를 활용한 반려동물 산업과 관광, 교육을 결합한 특화 전략이 크게 인정받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지역의 고유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도시재생의 우수사례로 두각을 나타냈다.

현재 군은 세계명견테마랜드 조성과 반려동물 특화 농공단지 조성 등 반려동물 친화적인 관광과 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세계명견테마랜드는 세계 각국의 명견을 만날 수 있는 명견 빌리지와 애견 호텔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반려동물 특화 농공단지는 반려동물용품 제조업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오수지구 도시재생사업이 지역특화재생사업의 모범사례로 잇따라 인정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수를 1500만 반려인들이 찾는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 만들고, 100여 개국의 세계 명견들이 모이는 테마랜드를 성공적으로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남원농기센터, 전북자치도 공모 4개소 선정... 17억7000만원 확보

남원시농업기술센터가 전북자치도 공모사업인 2025년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에 4개소가 선정되어 총사업비 17억 7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지원사업은 인구 감소지역 청년들에게 스마트팜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온실신축, 에너지시설, ICT 장비 및 재배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남원시는 2022년부터 사업비 30억8천만원(국비 11억6천6백만원)을 투입하여 청년농 7명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사업에 공모하여 전라북도 18개소 모집에서 4명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 밖에도 남원시는 민선8기 공약사업 ‘남원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을 위

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스마트팜 보급 누적 농가 250명을 목표로(현재 180농가) ICT 융복합 확산사업, 시설 원예현대화사업, 원예농가 세미 스마트팜 지원사업, 스마트팜 확대보급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3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김연주 소장은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사업으로 지역 청년 농업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나아가 60ha 규모의 농생명 선도지구 내 청년창업형·임대형 스마트팜과 가공·유통 및 미래농업 복합 문화공간 등을 통해 미래 농생명 산업의 전후방 기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 통



남원소방서, 완강기 사용법 홍보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건물 내 화재 발생시 안전한 탈출을 위한 생명의 줄 완강기 사용법을 홍보하고 있다.

완강기는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등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의 3층 이상 10층 이하에 설치해야 하고, 다중이용업소는 2층 이상 10층 이하에 설치해야 하며, 숙박시설은 ‘객실마다’ 완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완강기 종류는 사용자가 교대해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완강기와 사용자가 교대해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간이 완강기(인용 완강기)로 구분되며, 사용법은 △교리에 완강기 걸고 잠그기 △지지대를 향해 밖으로 밀고 밀(줄) 던지기 △완강기 벨트 조이기 △벽을 짚으며 하강 순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소방서, 겨울철 전기 난방용품 안전 사용 당부

임실소방서는 추워진 날씨에 난방용품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화재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겨울철 3대 전기 난방용품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기장판·전기히터·전기열선 등 3대 전기 난방용품은 추운 겨울철 보온을 위해 필수이지만 작은 부주의에도 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입힐 수 있어 난방용품 사용 시 안전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겨울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난방용품 구입 시 안전인증(KC마크) 제품 구입 △전기장판 열선 꺾임 및 눌림 주의 △정기제품 주변 가연물 제거 △미사용 또는 외출 시 전원 기구 전원 차단 △주변에 소화기 비치하기 등이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바른식생활교육 ‘인기’

올해 2000명 넘는 교육생 전국 각지에서 찾아... 만족도 98% 넘어

순창군이 운영하는 바른식생활교육이 건강과 힐링을 동시에 잡은 특색있는 프로그램으로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교육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14일 군에 따르면, 올해 바른식생활교육프로그램에 2,000명이 넘는 교육생이 참여해 ‘힐링 명소’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으며, 교육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98%를 넘어서는 등 호평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을 주관하는 순창 힐랜드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건강과 힐링을 테마로 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선보여왔으며, 지난 2021년 전라북도 유니크베뉴 선정에 이어 2024년에는 문화

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도 선정되며 전북을 대표하는 휴양·치유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표 프로그램인 ‘웰에이징 in 순창’은 건강장수 식단실습과 생활운동을 접목한 프로그램이다. 교육생들은 순창 특산물로 건강식을 만들며 균형잡힌 영양섭취법을 배우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운동법도 함께 익힌다.

또한, ‘식약동원(食藥同原)’ 프로젝트는 ‘음식이 곧 약’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설계됐으며, 순창의 대표 발효식품인 청국장과 약선 김치를 통해 면역력을 높이는 건강식을 체험하는 등 교육생들이 건강과 음식의 관계를



깊이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자연 속 힐링을 추구하는 ‘숲 록 프로젝트’와 ‘ESG 힐링 여행’도 큰 인기다. 교육생들은 편백숲에서 명상과 아로마 테라피를 체험하고, 치유농장에서 농산물을 수확하며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져 만족도를 높였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의 청정 농산물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바른식생활 교육이 전국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안전한 먹거리와 치유·힐링이 어우러진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최고의 힐링 명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한국자유총연맹 순창군지회,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개최

한국자유총연맹 순창군지회(회장 손충호)는 14일 순창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제44회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를 개최했다.

이번 합동위령제는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산화한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최영일 순창군수와 희생자 유가족, 군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덕사 주지 스님의 독경을 시작으로 추도사, 조시 낭독, 헌화와 분향 순으로 엄숙히 진행됐다.

손충호 회장은 “광복 이후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숭고한 희생을 바친 호국영령의 뜻을 가슴 깊이 새기고 계승해 나가겠다”면서 “희생자들의 고귀한 정신을 받들어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고 더 높은 민족 공동체로 도약하



는 밑거름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최영일 군수는 추도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평화통일을 위해 산화하신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면서 “앞으로도 한국자유총연맹 순창군지회와 함께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